

NH, 인천시민 볼모 사업준공 지연 논란

이용창 인천시의원 5분발언서 루원시티 도로공사 준공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에 이어 가평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마무리 도로 사업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창(국민의힘, 서구2)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23일 열린 제 293 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LH의 불공정 위법사항을 규탄했다.

이 의원은 따르면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법적 쟁점과 지역 현안 문제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되고 중단됐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 2만 세대 가량의 신축아파트가 완공됐다. 그리고 주민들이 90%이상 입주했지만 마지막 인천대로 진입로 연결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즉 가남로에서 인천대로를 연결하는 진입로 도로공사는 루원시티개발사업의 십자형 도로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사업이다.

이중 서구 서곶로에서 인천2호선 가평동역사상역과 인천대로를 직결하는 사업 중 역사 부근 지장물 철거사업이 보류돼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

인천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

LH에 지난 수년 간 역사 부근 지장물 이설을 요청했다.

이런 이유에는 도로 중간에 걸친 지장물로 인해 차량 통행 지장과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장물 대상인 지하철 환기기와 엘리베이터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를 위한 횡단 보도와 신호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루원시티에 입주한 주민까지도 등기권 설정이 보류되는 등 재산권·생활권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지장물 철거는 도로법·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해 반드시 LH가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시민을

볼모로 개발사업의 최종마무리를 지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LH는 이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인 2조2383억 원에 맞먹는 약 2조3000억 원의 토지매각대금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장물 철거비용 약 80억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LH는 서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등 인천시 주요사업마다 준공 지연의 가해자가 돼 혈세낭비와 시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LH가 진정으로 변화의 약속으로 먼저 지킬 것은 시민 존중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종언했다. 안중삼 기자



유광희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이 전국최초로 시행된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 조례 발의자로서 육아에 있어서 성 불평등 요소 해소방법과 아빠들의 양육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아빠 양육권 확대 위한 지자체 역할 설명

유광희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

유광희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구소·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주최의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에 첫 번째 발표자로 참석했다.

유 의원은 전국최초로 시행된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 조례 발의자로서 육아에 있어서 성 불평등 요소 해소방법과 아빠들의 양육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 향후 조례 제·개정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지난 남동구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은 지난 2018년 조례 제정 후 집행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들에게 남동구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구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인천 10개 구·군 중 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 조례로는 '휴직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1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육아휴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직종의 아빠들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사업 보완과 함께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아빠들이 스스로 느끼고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라며 "남동구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과 아빠 자녀 체력 프로그램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 실제 육아휴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구마다 상이한 아빠육아휴직 지원사업을 시와 통합연계해 충분한 예산으로 더 많은 아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시기"라며 "부모 공동 육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박근식 기자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경기도의회 13건 수상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

경기도의회가 23일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으로 전국 46건의 수상 조례 중 13건으로 경기도의회가 최다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개정·시행 함으로 입법과 정책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단체부문 대상에 안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경기도의회가 23일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 소방관서에서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법률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법률지원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 장애인 생생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재훈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조례'

를 발의한 김태형 의원,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방성환 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를 발의한 윤충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박재용 의원,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를 발의한 황진희 의

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를 발의한 최효숙 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정운경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발의한 우영일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경혜 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재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김인창 기자

주민감사 청구 각하... 강한 유감 표명

이동현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민주당, 시흥5)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감사관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사안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청 감사관은 "해당 청구 사안은 공수처 수사 진행의 사유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유는 각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주민감사 청구이유서를 살펴 보면 공수처 수사 의뢰된 내용과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결정'의 절차의 적법성, 사무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감사 청구로 경기도가 성실히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감사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수사 경과를 살펴보고 필요시 특정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청구 사안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창 기자

성남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성남시의회 정책토론회

성남시의회는 22일 '성남시 첨단산업(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중 판교를 중심으로 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발전방안을 논의하

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성남시의 미래산업으로서 유망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파악해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패시브 거점으로서 실효성 있는 육성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성남시가 대한민국 4차산업 미래도시로 거듭나는 본격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 의원은

"성남의 미래 50년이 달려있으며 성남 시민 모두가 고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성남의 아젠다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천대학교 조성준 교수는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직접지원보다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며 창업 초기지원의 집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태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성남시 시스템반도체(패시브) 발전을 위해서 우리모두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반도체 설계와 수요를 잇는 곳은 이곳 판교가 유일한 곳"이라고 토

론을 이어갔다.

이어 이선상 성남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성남형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통한 국내 유일의 반도체 연구개발특구 도시로 포지셔닝함으로써 정부의 국가첨단전략 산업 정책에 부응하는 등 성남시의 4차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규범 성남시4차산업추진단장은 "정부 및 성남시의 정책기조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컨트롤타워 중심 역할을 위해 정부·대학·기업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www.1gan.co.kr
일간경기

신문과 방송이 만나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일간경기 · 일간경기TV

언제 어디서든 지역의 소식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깊이있는 뉴스를 전하는 지면
한발더 빠른 디지털 뉴스
생생한 현장의 소리 전하는 인터넷방송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47~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 대표전화 : 032-508-0006 팩스 : 032-293-5030